# 선민은 물구나무선 싱크홀이다

## (사사기 16:23~31)

26.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27.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선민은 물구나무선 싱크홀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선민은 물구나무 선 싱크홀이다'
싱크홀을 다 아실 것입니다. 2010년 7월에 과테말라시의 한 가운데 지름 18m 깊이가 60m나 되는 싱크홀이 생기면서 그 위에 있던 3층 건물과 가옥 4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한 층이 3m가 못 되기 때문에 60m면 25층 가량이 되는 아파트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불과 2km 떨어지지 않은 곳에 100m에 달하는 깊이의 싱크홀이 2007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석촌 호수의 수면이 낮아지는 이유가 싱크홀 때문이라면서 롯데월드 공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싱크홀은 맥시코에 있는 "제비동굴"이라고 합니다. 수직 싱크홀로서 지름이 무려 50m이고 깊이가 무려 376m로 엄청납니다. 이러한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는 땅 밑으로 지하수의 통로가 네트워크처럼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 100km 떨어진 지역에 구멍이 생겨서 지하수층의 물이 빠져나가버리면 동공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동공의 천장이 약할 경우에는 지반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데,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동공현상 때문입니다.

선민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싱크홀인데 물구나무선 싱크홀입니다. 이 땅에 생기는 싱크홀은 내려앉지만 선민이 싱크홀이 될 때에는 올라앉게 됩니다. 아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선민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싱크홀인데 도대체 싱크홀로서의 선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밀착관계 안으로 들릴라가 비집고 들어오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놋줄로 묶여 가축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이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고 있던 눈먼 삼손을 데려와서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어떤 재주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를 하고 자기를 안내한 소년에게 '다곤 신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을 의지하게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신전을 지탱하던 두 기둥을 양손으로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삼손도 같이 죽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신전의 지붕에 앉아있던 사람들만 3,000명이라고 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죽었는데 이 사건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삼손의 죽음이 바로 과테말라시에 생긴 싱크홀과 같은 것이었는데 물구나무선 싱크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마지막 이야기는 마치 자폭테러단 같고 2차 대전 때의 일본의 가미가제 비행단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과 같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성경 말씀은 십자가 복음과 연관하여 생각해야 하고, 십자가로 귀결되는 길을 찾아내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이렇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손에 죽으실지언정 원수들을 이렇게 죽이신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죽음을 이슬람 강경세력의 테러와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죽음과 다곤 신전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두 죽음의 의미를 비교하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죽음의 요점은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여'라고 다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삼손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죽음을 결심하는데 이 죽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적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 세

상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므로 이것은 자살도 자살테러도 아닌 물구나무선 싱크홀이 됩니다.
들릴라와 삼손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봅니다. 육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가족, 애인, 친구, 직장동료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치 싱크홀이 지하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수가 아닌 마음수의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줌으로 마음은 이 땅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육체로 만나는 대상들에게 마음을 주며 집을 구성하는 하나의 벽돌이 되는 것처럼 인간 사회의 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육체를 통해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함으로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만나서 인간 사회가 이루어지고 조밀하게 만나 인간 사회의 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네트워크들이 이 땅을 향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이 삼손처럼 하늘을 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들릴라를 향했던 것처럼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서 이 땅에 대한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리에 동공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싱크홀이 생길 때에 블레셋의 죽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죽음은 그 싱크홀을 통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 출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2: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삼손의 상태는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의 상황을 대표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육체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만나고 가지게 되므로 육체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육체가 죽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내가 관계하는 아내, 남편, 가족들의 육체가 죽을까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촘촘히 모여서 인간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서 동공 상태가 만들어져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육체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버리면, 인간 사회에 싱크홀이 뚫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죽음이 선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눈이 빠진 채 묶여서 재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 처참한 처지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를 드린다면 ‘들릴라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등한히 한 것을 회개하고,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켜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믿으며 잘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늘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는 물구나무선 싱크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시는 이유는 싱크홀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세상에 대한 죽음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가 알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 가는데, 마음이 하늘을 보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의 인자를 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육체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을 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스데반의 마음은 육체와 육체를 통해 만나는 대상들에 붙어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거기에 바로 싱크홀이 생겨나고 그 싱크홀을 통해 살기등등했던 사울 청년이 바울이 되어서 유럽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싱크홀의 역사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뒤집힘의 역사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블레셋의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은 싱크홀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블레셋의 죽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뜻합니다.

블레셋의 죽음이 뜻하는 바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곤'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을 갖는데 먼저 히브리어의 '다간'으로 '곡물(옥수수)'을 뜻하고, 두 번째로 '다그'라는 단어의 '물고기'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다곤 신의 하반신은 물고기이고 상반신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곡물을 뜻하는 다간이든 물고기를 뜻하는 다그에서 나왔든 다 맞는 말입니다. 블레셋의 도시들은 지중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바닷가 도시가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대신에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다곤 신은 풍요와 번영의 신인 바알 신의 아버지로 통합니다. 결국 풍요와 번영은 농부들에게는 농사 잘 되는 것이 풍요이고, 어부들에게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이 풍요입니다. 다곤 신 또한 풍요와 번영의 신인데 그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블레셋이 죽은 사건이 뜻하는 바가 의미심장합니다.
인간 사회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조밀하게 붙어서 형성되었고, 그 육체가 살아있음으로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인류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욕망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눅16: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사람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기 아니면 재물 섬기기'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구조를 보면 전부 돈과 연결이 되어서 인간 사회의 체제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북이 핵 도발을 하는데 결국 돈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를 보면 재물과 무관한 곳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인간 세상 전체가 다곤 신전과 같은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열망하는 인간들의 열망이 상호 양보를 통해 적정선을 찾아 법과 질서와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도둑질하면 안 되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대통령도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사명이 정신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으로 믿어지는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느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 전체와 국제관계도

전부 다곤 신전이 되어서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라끼리 영토 싸움을 하는 이유도 재물과 물질에 연관이 되어 있고, 영토를 많이 가져야 많은 재물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실제로 다곤 신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를 중시하는 이유는 육체를 통해서 첫 번째 갖고 싶어 하는 재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 재물에 대한 욕망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기면 벌을 줍니다. 이러한 사회 체제로 이루어진 다곤 신전에서 살고 있는데, 다곤 신전에 들어간 선민한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와 만나는 재물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곤 신전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생겨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블레셋 사람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이웃의 싱크홀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돈이 전부가 아니고, 육체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현실감이 생겨나서, 그 마음속에서 다곤 신전의 체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곤 신전이기에 우리는 삼손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삼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로 올라가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꼴을 보아도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아버지와 하늘의 교제를 누리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못하더라도 이론적으로라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다곤 신전을 허물고 다곤 신전의 기둥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싱크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돌릴 수 없기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족이나 나라, 회사, 가정, 직장 무슨 문제든지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싱크홀을 따라 올라가면 내 자리도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싱크홀이 되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물구나무선 싱크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모든 들릴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붙잡음으로 어디를 가든 물구나무선 싱크홀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므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날마다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